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5화		
5. 하얀 산			
<p>무장에서 포고문을 발표한 동학군은 곧바로 고부로 진격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고부를 공격하기로 한 것은 체포된 동학도들을 구하고 이용태를 처단하기 위해서였다. 진군하는 동안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은 동학군을 반겼다. 그들에게 동학군은 고단한 세월을 끝내고 새 세상을 만들어줄 구원군이였다. 긴 행군이였지만 갈수록 동참하는 사람들로 동학군의 숫자는 계속 늘어갔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남녀노소가 함께 깃발을 들고 수레를 끌고 서로 의지하며 고부에 도착한 동학군은 복면 말목장터에서 지난 봉기 때 숨겨두었던 무기를 찾아 무장했다. 그리고 그날 밤 고부 북성 안으로 들어서서 관아를 습격했다. 이용태와 관졸들은 처음에는 대항해 보려고 했으나 5천여 명의 사기충천한 동학군에 압도되어 전주로 도망쳤다. 고부관아를 점령한 동학군은 우선 억울하게 투옥되어 있는 동학도들과 농민들을 석방하고, 군기고를 열어 총창과 탄약을 수습해서 무기를 보충했다. 또한 이용태에게 부역한 자들을 처형하고, 식량창고를 열어 나누어주었다. 이 모든 일은 동학군이 고부 관아를 점령한 사흘 안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전주로 향하기 전 백산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지도부를 꾸리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백산에 모인 동학군들은 만 명이 넘었다.</p> <p>전봉준은 백산에 온 인혁을 환영했다. 인혁은 명석한 두뇌와 학식으로 전봉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평생 싸움을 해 본 적이 없는 인혁은 두렵고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예나 법도에서 벗어난 지금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다.</p> <p>***</p> <p>“양반나리께서 왜 동학군에 들어오셨대요?”</p> <p>행군을 마치고 막사를 세운 저녁이었다. 고부 출신 엄이경이 인혁에게 물었다. 도포와 갓을 벗고 평복을 입었어도 인혁이 양반임을 사람들은 금세 알아보았다. 죽창을 다듬던 인혁은 차분히 이경을 바라보았다. 이경은 어린 나이에 만석보 축조에 노역하고 돈도 못 받았다고, 그래서 만석보를 허물 때 앞장 섰다고 연신 떠들던 청년이었다. 다부지고 날쎈 몸에 고부뿐 아니라 근방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경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인혁에게 관심의 눈길을 주었다. 대부분 농민이나 천민인 동학군들이었으니 양반인 인혁의 동참이 궁금할 만 했다.</p> <p>“양반인 게 뭐가 중요하겠소. 보국안민 사인여천 동학의 뜻에 함께 하기 위해서지요.”</p> <p>인혁의 대답에도 모두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 인혁을 흘깃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p> <p>“집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고생하는 게 무슨 사연 있는 건 아니고?”</p> <p>“뭘 잘못을 하고 도망 온 건 아닌가?”</p> <p>엄이경이 다시 물었다.</p> <p>“아무리 동학도래도 양반인데, 신분이 다른 우리들과 한술밥 드실 수 있으실라나요?”</p> <p>“내가 양반으로 태어나고 싶어 양반이 된 게 아니듯 댁들도 농민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지 않소. 나는 모든 사람 안에 하늘님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는 동학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 온 거요. 댁들도 다 같은 사람으로 사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오?”</p> <p>인혁의 말에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경은 인혁이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하자 단번에 친한 척을 하며 장난을 걸어왔다.</p> <p>“그럼 다 같은 사람이니 양반취급 안 해드려도 되겠지요?”</p> <p>“허허 고마운 말씀이요.”</p>			

“근데 곱게 자라서 싸움이나 제대로 할 수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한 번 붙어 보시겠소?”

인혁과 이경이 주먹다짐 하는 척 하며 농담을 하자 모두들 환하게 웃었다. 순박한 사람들의 웃음에 인혁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언제 전투에 나서게 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도 잠시의 평화가 있었다. 그 때, 인혁의 시선에 한 가족이 들어왔다. 아들로 보이는 소년의 옷에 부적을 꿰매주는 부인과, 행여 아들이 죽창을 만질까봐 타이르는 남편이었다. 곤궁해 보이는 행색이었지만 부인과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 다정했다. 인혁은 부부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저도 가겠어요.”

주명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갑작스럽게 방문을 열어젖히며 주명이 달려 들어와 엎어지듯 앉으며 외치는 바람에 잠자리에 들려던 인혁은 깜짝 놀랐다. 밖에서 고하지도 않고 이렇듯 들어온 일은 한 번도 없는 주명이었다.

“저도 서방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붉게 상기된 주명의 얼굴은 울었던 흔적이 분명했다.

“부인! 지금 무슨 말을.. 아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위험하니까요.”

“그리 위험한 곳에 서방님 혼자 보내드릴 순 없습니다.”

인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이내 차분하게 주명을 달랬다.

“부인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노상에서 먹고 자고 행군해야 하는 곳이요.”

전투로 다칠 수도 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주명이 이미 알고 있다 해도 인혁은 자신의 입으로 전쟁터에 나선다고 말하기 힘들었다.

“서방님께서 하시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어찌 이리 고집을 피우시오.”

“부부일심동체니까요.”

“아내라고 해서 무조건 남편을 따라가는 게 도리는 아니요.”

“도리가 아니라...”

주명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동자가 바르르 떨렸다.

“사랑입니다.”

주명의 말에 인혁의 눈이 커지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생각지 못한 말이었지만 어찌면 진작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아니 자신이 먼저 했어야 하는 말이었다. 인혁은 가슴이 터질듯했다. 그런데 막상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서방님은 아니실지 몰라도 저는 혼례 전부터 서방님을 흠모했어요.”

“....”

“저 혼자만이 마음이라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서방님 안 계시면 저는 못 살아요.”

“....”

인혁이 계속 침묵하자 주명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견딜 수가 없는 듯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실망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주명은 중얼거렸다.

“제가 너무 갑자기... 늦은 시간에... 내일 다시 얘기를... 이만 가볼게요.”

주명이 일어서려 할 때야 인혁은 정신이 들며 자신도 모르게 주명의 손을 잡아끌었다. 그 바람에 주명은 그의 가슴팍에 쓰러졌다. 놀라 올려다보는 주명의 눈이 인혁과 마주쳤다. 대답을 원하는 슬픈 눈동자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인혁의 얼굴이 미소 지었다. 주명의 얼굴이 기대와 희망으로 변해갔다. 그것을 보자 인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대답을 들었다는 표정이었다. 인혁의 얼굴이 천천히 주명에게 다가갔다. 주명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과 함께 행복이 밀려들었다.

주명이 눈을 떴을 때, 인혁은 없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인혁이 있었던 옆자리를 보았다. 부부로서의 의무가 아닌, 마음을 주고받은 진정한 첫날밤이었다. 그러나 곧 주명의 표정이 변했다.

인혁의 흔적이 있던 자리에 서신 한 통이 놓여있었다. 주명은 벌떡 일어나 편지를 집어 들었다.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갔기에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숨을 가다듬었다.

[부인, 슬퍼하지 마시오. 화를 내지도 마시오. 우리 마음을 확인했으니 나는 부인과 함께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오. 필히 무사히 돌아올 것이니 그 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지내주시오. 사랑하오.]

주명은 한참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밖을 향해 말했다.

“업동아. 밖에 있니?”

“네.”

“들어오렴.”

문이 열리고 업동이 조심스럽게 주명의 기색을 살피며 들어왔다.

“할 얘기가 있어. 너와 나만의 비밀로.”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황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 앞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과, 방백 수령 밑에 굴욕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돌이키지 못하리라”

전봉준은 백산에 모인 동학군을 향해 격문을 읊었다. 부안, 태인, 금구, 원평을 비롯한 전라도 각 지역에서 모인 만 명의 군사들이었다. 흰 옷에 푸른 죽장을 든 동학군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멀리 두승산이 보이는 작은 동산에서 북과 팽과리와 징, 피리들이 어우러진 소리가 합성과 함께 널리 퍼져 나갔다. 이어 동학군 지도부는 전봉준이 대장으로 추대되고, 비서에 송희옥과 정백현, 영술장에 최경선, 총참모에 김덕명과 오시영, 총관령에 손화중과 김개남으로 구성되었다.

동학군들에게는 4개의 강령이 선포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지어다. 둘째, 충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다. 셋째, 왜적과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거룩한 길을 밝힐 것이다. 넷째, 군사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여 권세가와 귀족들을 모두 없앨 것이다.]였다. 그리고 [적과 싸울 때는 언제나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가장 큰 공으로 삼는다. 부득이하게 싸우더라도 절대로 인명을 상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행군할 때에는 언제나 사람과 사물에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효자와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과,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과, 벼에게 신의가 있는 사람이 사는 마을의 주위 10리 안에는 주둔하지 않는다.]라는 4개의 행군 약속을 만들었다. 또한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추방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존중한다. 도주하는 자는 쫓지 않는다. 굶주린 자는 먹인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막는다.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긴다.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거역하는 자는 타이른다. 병든 자는 진찰하여 약을 준다. 불효한 자는 형벌을 가한다.]의 12개조 기율도 만들어 지키게 했다. 동학군은 이 명령을 지키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곡식을 밟지 않고 오히려 쓰러진 보리를 일으켜 세워 가며 행군했다. 노인과 아이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마을에 들어서면 밥을 얻어먹을 뿐 가축도 맘대로 잡아먹지 않았다. 백산 관아를 점거했을 때는 관창을 열어 관미 4천석을 곤궁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동학군을 열렬히 환영하며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는 등 지원해주었다.

동학군은 ‘보국안민(保國安民)’과 ‘동도대장(東徒大將)’ 기를 앞세우고 그 뒤에 청·홍·흑·백·황의 오색 기를 각 방향으로 벌려 들었다. 그리고 부안, 고부, 영광, 무장, 흥덕, 고창 등의 읍 이름을 새긴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총과 활을 든 동학군의 어깨에는 궁을(弓乙)이라는 부적을 붙이고 등에는 동심의맹(同心義盟) 녀자를 붙였다. 대장 전봉준은 상복을 입고 동학의 ‘三七’주문을 외며 지휘했다. 동학

군 대오는 삼삼오오 진법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다.

인혁은 긴 행군으로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혀 절뚝거리면서도 뿌듯했다. 이제껏 몰랐던 농민들의 괴로운 현실을 들을수록 세상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미안해서 인혁은 더욱 스스럼없이 동지들에게 살갑게 굴었다. 고단하지만 보람 있는 날들이었다. 가끔 주명이 그리워 밤새 뒤척이는 날이 있을 뿐 이었다. 어쩌다 꿈을 꾸면 환하게 웃는 주명의 얼굴에 인혁이 잠든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울며 붙잡는 꿈에 자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인혁은 아내를 위해선 반드시 살아야 했기에 틈틈이 최경선에게 소총 쏘기와 무술을 배웠다. 누군가를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인혁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봉기를 한 이상 전쟁이었다. 전쟁에서는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려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야 하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 하는 행군과 무기 훈련이 힘들었지만 인혁의 몸은 금방 적응했다. 원래 건장하고 단단한 체격에 젊음이 그의 재산이었다.

인혁 뿐 아니라 동학군은 대부분 군사훈련을 받은 적 없는 농민들이었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그들에겐 나라와 백성을 구한다는 대의와 민중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곁의 동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 관군의 강한 무기에 맞서는 건 나약한 몸이 아니라 애국애민의 정신이었다.